

전남도, 행안부 고향올래 사업 공모 3년 연속 선정

두 지역살이 분야 합평 ‘대단한 동네, 대동면 5도2촌 플랫폼’ 관련 부서 회의·사전 현장 실사와 발표 등 철저한 준비 성과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 공모 ‘2025년 고향올래 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향올래 사업은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응하고 생활인구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행안부에서 2023년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위케이션, 린케이션, 두 지역살이, 로컬유희, 로컬벤처, 5개 분야로 구성됐다. 총사업비는 212억 원(특교세 106억 원·지방비 106억 원)이다. 이번 공모 결과 전국 12개 사업 중 전남도는 두 지역살이 분야에 합평군 ‘대단한 동네, 대동면 5도2촌 플랫폼’ 사업이 선정됐다. 합평 대동면에 있는 합평향교와 대한민국 최초의 철학학교인 ‘기본학교’가 있는

호점몽가, 월산사 등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전통과 자연, 인문학을 융합하여 역사와 창의적 사유를 잇기 위한 두 지역살이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주 사업은 두 지역살이 체험 방문객을 대상으로 거주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대동면 월송리 401-1번지 일원에 소재한 65년의 전통가옥을 현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것이다. 2026년까지 총 20억 원(특교세 50%·지방비 50%)이 투입된다. 특히 ‘대단한 동네, 대동면 5도2촌 플랫폼’ 사업은 철학자 최진석 교수의 인문학 강의 프로그램, 황금박쥐를 찾아라 등 지역 탐방 프로그램, 의례음식·스마트팜·곤충농장 체험 등 차별화된 지역특화 프로그램으로 구성·운영될 예정이다. 전남도는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기 위



해 공모 신청 시점부터 도·군 관련 부서 회의와 사전 현장실사를 추진, 도·군·지역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고 행안부 현장실사와 발표까지 철저히 준비했다. 이러한 노력이 심사위원들의 깊은 공감을 얻는 등 3년 연속 선정의 쾌거를 이룬 것으로 풀이된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인민국장은 “이번 공모사업까지 두 지역살이 분야가 3년 연속 선정돼 전남이 지역 로컬자원과 생활체류 연계에 특화됐음을 확인했다”며 “두 지역살이를 통해 생활인구 증가를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전남에 정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염선호 기자



“주력 공급망 조정, 먹거리 시장 확장”

광주연구원 ‘관세 강화에 따른 지역경제 대응방안 심포지엄’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발 관세정책 위기에서 광주경제가 살아나기 위해서는 자동차·석유화학·알루미늄 등의 공급망을 재조정하고 먹거리 시장 확장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광주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강화로 인한 지역경제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심포지엄을 열었다고 9일 밝혔다.

심포지엄에서 김봉진 광주연구원 공공투자경제분석센터장은 ‘광주 경제 동향 및 경기 진단’ 발표를 통해 “광주 경제는 단기적으로 경기하락 국면에 직면해 있으며 장기적으로 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되는 상황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경제 주체 각 분야의 새로운 혁신이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또 “생산과 재고가 모두 늘었지만 고용과 소비가 따라주지 않으면 반등이 어렵다”며 “인력 재교육 강화,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전통시장·소상

공인 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과제를 제시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진흥원생산지리재단 대표는 “더 따뜻한 민생 경제를 위한 물음” 주제발표에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생 분야 유관기관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절실한 시기”라며 “역량을 모아 광주 민생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우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수정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은 “트럼프 관세 정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발표를 통해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심화로 지역 주력 산업의 수출입 리스크가 커졌다”며 “국제 공조 체계 구축, 조선·에너지 분야 협상 강화, 자동차·석유화학·철강·알루미늄 등 업종별로 무역협정 체결을 추진하고 기업 차원에서 공급망 재조정과 원산지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광역시 소재 스타트업 오롯이주스는 당뇨 환자들도 걱정없이 마실 수 있는 ‘저당 웰니스 주스’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2022년 창업한 이 회사는 웰니스 문화에 기능을 더해 당도 걱정 없는 저당 주스 데일리 5종을 개발했으며 그중 ‘클래식 진저샷’이라는 제품이 가장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오롯이주스의 모든 제품은 첨가물 없는 이 로컬에서 생산된 농산물만으로 적응을 한다. 미리 만들어서 보관해 둔 주스를 배송하는 시스템이 아닌 모든 주스를 예약 주문과 함께 구독형 비즈니스 모델을 도입해 미리 정해진 수량만 생산해 배송한

광주 스타트업 ‘오롯이주스’, 당도 걱정 없는 주스 출시

다. 주스의 모든 재료를 로컬 농가와 상생협약을 체결해 공급받는다. 당일 로컬에서 수확한 농산물을 직접 지역 농민들로부터 받아 오롯이만의 레시피로 착즙한다. 나주 배와 시금치를 활용한 주스는 생소한 주스지만 한 병에 영양과 맛을 담았다. 전남 나주시 남평읍 청년 농부에게 공급받은 시금치를 비롯해 지역에서 생산한 배, 사과, 생강을 블렌딩해 한 병의 웰니스 주스로 만들었다. 시금치 주스의 제품명은 소비자들에게

친근하고 즐겁게 표현하기 위해 ‘뽀빠이 주스’라고 했다. 오롯이주스는 지난달 서울 강남지역 병원과 첫 계약을 맺는 등 올해 병원 15곳 이상 구독 서비스 체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오는 30일부터 6월12일까지는 롯데백화점 광주점에서 팝업을 개설해 백화점 방문 고객들을 찾아간다. 주스뿐만 아니라 오롯이 굿즈 등도 선보일 계획이다. 향후 도심 오피스 상권에서 출근길이나 점심시간에 카페인보다 에너지를 보충하고 건강



을 챙기는 문화를 위해 경험형 마켓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연희 대표는 “오롯이주스는 단순히 건강 음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매일 한 병을 구독하면 로컬에서 수확한 농산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자산지소’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주스다운 주스 한 병으로 건강과 가치 소비를 동시에 만족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임채일 기자

전남도, 건설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

맞춤형 권익보호 정책으로 건설경기 회복 뒷받침... 선착순 접수

전라남도는 고물가와 투자심리 위축 등으로 어려운 지역 건설업체의 부담을 덜기 위해 ‘건설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수수료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시행되는 민간 발주 건설공사 중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지급보증서를 발급한 원도급사를 대상으로 발급 수수료의 50%(최대 1천만 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은 선착순으로, 전남도 지역계획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지급보증서는 원도급사가 하도급 계약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발급해야 하는 문서로, 하도급사가 공사비를 안정적으로 지급받도록 제도적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수단이다. 그러나 그동안 현장에선 직불 합의 핑계, 보증서 발급 시 발생하는 수수료 부담 등 이유로 원도급사가 제도 이행을 기피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지급보증서가 발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원도급사가 부도나거나 공사를 포기할 경우 하도급사는 물론 소속 근로자, 자재·장비업체까지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역 건설업계 전반에 생계 위협이 발생하는 악순환이 반복됐다. 이에 전남도는 이번 수수료 지원사업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건설업계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안정적 공사 참여 기반을 마련해 침체한 지역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하도급 지급보증 수수료는 소액이지만 건설업계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건설산업은 지역경제와 고용 창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지역 건설업체를 보호하고 앞으로도 건설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재기 기자

전라남도는 청년이 겪는 다양한 삶의 고민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도록 청년정책 홍보책자 ‘전남 청년의 고민해결책’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남 청년의 고민해결책은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다양한 분야의 79개 청년정책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뿐만 아니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문의처 등 실질적 정보가 담겨 있어 청년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올해는 청년의 취업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다수 포함돼 눈길을 끈다.

전남도 일자리·주거·교육 등 청년정책 한눈에

다양한 분야 79개사업 수록 ‘전남 청년의 고민해결책’ 발간

주요 정책은 ▲청년의 취업 도전과 중소기업 채용을 지원하는 ‘전남 청년 희망일자리’ ▲일정 요건을 충족한 청년에게 프로그램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청년도전 지원사업’ ▲2년 이상 도내 거주 19~28세 청년에게 연 1회 25만 원의 문화복지비를 지원하는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2024년 이후 출생아에게 18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는 전남도·시군 출생기본수당 등이다.

책자는 누구나 쉽게 접하도록 시군과, 청년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배포했으며, 전남도 청년센터 누리집(www.jeonnamyouth.kr)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청년이 자신의 삶에서 필요한 정책을 직접 찾아 활용하도록 돕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라며 “전남 청년의 고민해결책이 고민 현실에서 청년에게 조금이나마 실용적인 길라잡이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청년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알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종팔 기자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자연속의 가족매일 곡성